

지역 매 아 리

정읍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가족 '헤아림교실' 운영

정읍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가 치매가족의 행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나섰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 부담과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환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조호(助護)와 관리방법 교육, 스트레스 해소 활동 등을 지원하는 가족 지지프로그램인 '헤아림교실'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에 따르면 '헤아림교실'은 치매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고 돌봄의 긴 시간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치매알기'와 '돌보는 지혜' 등으로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은 9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에 총 8회기로 진행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헤아림교실과 더불어 치매환자는 물론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보건소, 영양원 낙상예방 교육

부안군 보건소는 관내 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 및 의뢰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낙방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종사자 및 입소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군 보건소는 관내 요양원은 모두 9개소로 올해 2개소(부안군 노인요양원, 해상 노인요양원)로 시작해 내년에는 안전사고 예방 및 환자관리교육을 필요로 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2016년 업무협약을 맺은 원광대학병원 심 뇌혈관센터의 재활전문 간호사를 초청해 하였으며 요양원의 요구도를 고려해 낙상 사고예방을 주요 주제로 심 뇌혈관질환 및 퇴행성 질환, 환자 이동동작관리 등을 포함한 교육했다.

특히 이번 달 중으로 낙상 고위험 어르신의 집중관리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보급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해 낙상 위험환경평가를 실시해 더욱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요양원 관계자는 "낙상 사고에 대해 더욱더 경각심을 갖게 되었으며, 우리 기관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며 "입소 어르신들께서도 새로운 교육에 재밌고 있어 하시고 다음 교육을 기대하고 계신다"고 흐뭇해 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대한민국 대표 힐링섬 위도면 초도방문

주요 업무보고 청취 · 민생현장 탐방 · 질의응답 등

권익현 부안군수가 취임 후 지난날 23일부터 읍·면 초도방문을 시작으로 지난 6일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대표 힐링섬 위도 면을 1박 2일 일정으로 이뤄졌다.

지난 6일 권익현 군수는 위도 면을 방문해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민생현장을 탐방하며 업무보고시 주민 의견청취 시간에는 위도면민들의 열기 넘치는 질문사항을 침착하게 주민이 이해할 수 있게 관계부서에서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큰 호응을 얻었다.

첫날 권익현 군수는 마을경로당과 모정 등 6개소 민생탐방과 국가 무형문화재 때뱃놀이전수관을 방문했으며 경로당, 모정 등에서 어르신들과 대화를 통해 폭염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사항들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날에는 상·하왕릉도, 식도를

방문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만나 정주환경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권익현 군수는 "위도를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 힐링의 섬으로 만들겠다"며 "도서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삶의 자긍심을 가지고 주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6일 1박 2일 일정으로 위도 면을 방문했다.



고창군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달까지 '하반기 반짝반짝 총명한 백세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반짝반짝 총명한 백세교실

고창군 보건소, 폭염 속 건강 지키는 체조 인기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폭염으로 인한 농한기 기간 동안 무더위 쉼터인 경로당에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달까지 '하반기 반짝반짝 총명한 백세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7일 보건소에 따르면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와 노인 우울 등을 위험요소로부터 예방하고, 전문강사의 기술훈련을 돕는 기공체조를 통해 한의약적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중풍 과 치매 예방을 위한 건강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마련했다.

주 2회 운영되고 있는 백세교실은 현재 3개 마을(공음면 참촌·상하면 상하여자·심원면 용기경로

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초 건강검진을 시작으로 ▲한방진료 및 상담 ▲치매선별검사(MMSE-DS) ▲기공체조 ▲노인우울척도(SGDS-K) ▲생활공예교실 ▲미술치료 ▲한방차 끓이기, 한방 합침싸기 체험교육 ▲통합건강관리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연이은 폭염으로 야외활동을 자제하면서 운동 부족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고창군 보건소(063-560-8721)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귀농귀촌학교 제22기 30평 도제식 전직창업과정 교육 개강

31일까지 귀농귀촌 희망자

귀농 2년차 이내 교육생 대상

2018 전북귀농귀촌학교 제22기 30평 도제식 전직창업과정 교육(30坪 徒弟式 轉職創業課程, 이하 창업과정 교육)이 지난 6일부터 시작했다.

당일 개강식과 함께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간 창업과정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전북귀농귀촌학교 영농조합법인(대표 김준성)(이하 전북귀농귀촌학교)이 주관한다.

개강식은 유진섭 시장과 김준성 귀농귀촌학교 대표, 김종관 교장을 비롯한 교육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대인 정읍유기농체험센터에서 열렸다.

교육은 이달 6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이론과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귀농 2년 차 이하 희망자 중 선정된 31명을 대상으로 정읍유기농체험센터에서 주중 합숙형으로 운영된다.

이번 교육은 올해 네 번째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개강식에서 유진섭 시장은 "그간

600여명의 교육 수료생들이 정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김준성 대표와 김종관 교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고마운 뜻을 전했다.

이어 "정읍은 도시민들이 귀농하기에 딱 좋은 교통과 기후 여건 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도 접근성이 좋다"며 "많은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정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하계대학생 아르바이트 간담회

정읍시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계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대학생(7명)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추진되고 있는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보고 느낀 점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더불어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장에 반영하고, 학생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유 시장은 "사상 유례 없는 폭염 속

에서도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과 시립 박물관 등지에서 정읍시민을 비롯한 이용객들의 편의를 애써 주신 대학생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아르바이트 경험이 정읍시와 공직자가 수행하는 일을 좀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소감 발표도 이어졌다. 고재협(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1

학년)군은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에서 일하면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일부 시민들께서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 등을 보면서 실망스럽기도 했다"면서도 "하지만 깨끗하게 정비된 캠핑장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보거나 애쓰며 격려해주는 분들을 만나면 보람도 컸다"고 말했다.

또 권경욱(전주대 보건관리학과 2학년)군은 "보건소에서 일을 하며 전공 관련 정보도 많이 얻는 등 유익했고, 특히 이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건직공무원의 꿈을 품게 됐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피서철 맞아 안전한 먹거리 확보 '총력'

정읍시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관련해 시는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 지역 내 피서지 주변 업소 23개소와 가장간편식 취급업소 1개소, 모두 24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섰다.

아울러 피서지 주변 무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시는 "여름 휴가시즌과 방학기간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피서지에서 불법 위생업소 영업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전한 식품접객업 영업 풍토를 조성해 고 무신고업체의 영업 근절을 통한

여름 피서철 식품위해요인 차단을 위해 지도와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과 교육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여부 ▲건강 진단 이행 여부와 그 외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무신고 음식·식재료 등 조리판매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피서지 특수효과를 노리는 일부 불법 식품 위생업소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여름 휴가철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해 문화관광 도시 정읍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뽕술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번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호 | 750ml 1ea/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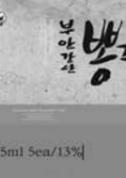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뽕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호 | 375ml 2ea/13%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h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